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담당부서	IBK경제연구소 통계조사팀
담당팀장	황수영 (02-729-6898)
담당팀원	안병립 (02-729-6892)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

2015. 3. 20.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목 차

I.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1. 설비투자 전망 ····· 1
2.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 ····· 2
3. 설비투자 실시 사유 ····· 3
4.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 4

II. 2015년 자산형태 및 자금조달별 설비투자 전망

1.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 5
2. 자금조달처별 설비투자 ····· 6

III.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여건 전망

1.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 7
2. 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8
3.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 ····· 9
4. 동종업계 설비투자 전망 ····· 10
5.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 11

<부록> 조사개요 ····· 12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 결과 (요약)

□ 2015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ㅇ 2015년 설비투자를 계획중인 업체비율은 전년(26.5%)대비 0.7%p 증가한 27.2%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의약품(71.4%), 음료(46.7%), 자동차(39.4%), 화학제품(38.1%) 등의 업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 규모별로는 중기업(51.1%), 형태별로는 기초소재형(28.1%),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28.5%)이 높게 나타남

ㅇ 이는 올해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분석

□ 설비투자 실시 사유로는 '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57.5%), '기존 제품의 생산력 증대'(36.2%), '차량·선박·공구·비품 등 구입'(32.4%) 등의 순

ㅇ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로는 '기존설비만으로 충분'(73.4%), '국내 수요 불투명'(48.6%), '수익성 저하'(29.6%) 등을 꼽음

□ 2015년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내수경기'(69.2%)를 꼽았으며, 설비투자 확대시점을 묻는 질문에 51.7%가 앞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

ㅇ 이는 저성장세 지속으로 수요 회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경기 부양'(57.4%),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35.2%),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25.8%)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1 설비투자 전망

□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은 27.2%로 전년(26.5%)대비 0.7%p 증가할 전망

○ 이는 올해도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분석

○ 규모별로는 중기업(51.1%), 형태별로는 기초소재형(28.1%),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28.5%)이 설비투자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 추이

(단위 : %, %p)

		2014년 (A)			2015년 (B)			증감차 (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26.5 (36.8)	23.0 (28.8)	20.4 (30.5)	27.2	24.3	18.4	0.7
규모별	소 기 업	21.0 (31.1)	17.9 (22.6)	15.4 (24.6)	21.7	19.0	13.6	0.7
	중 기 업	49.6 (61.7)	44.2 (55.3)	42.2 (56.3)	51.1	47.0	39.0	1.5
형태별	가공조립형	28.4 (39.2)	24.7 (30.7)	20.7 (32.4)	27.6	24.4	18.6	-0.8
	기초소재형	27.3 (40.4)	24.7 (32.3)	22.0 (33.6)	28.1	25.3	19.2	0.8
	생활관련형	22.9 (29.5)	18.7 (22.3)	18.6 (24.4)	25.8	23.1	17.3	2.9
산업별	중화학공업	28.8 (40.2)	25.4 (31.6)	21.7 (33.3)	28.5	25.5	19.3	-0.3
	경 공 업	22.4 (30.7)	18.9 (23.6)	18.3 (25.3)	24.8	22.1	16.7	2.4

주 : 1) 소기업은 종업원 수 5~49인, 중기업은 50~299인
2) ( )는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 실적치

2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

□ 업종별로는 의약품(71.4%), 음료(46.7%), 자동차(39.4%), 화학제품(38.1%) 등의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기타운송장비(8.6%), 나무제품(12.7%), 의복・모피(15.5%), 가죽・신발(15.9%)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 대비로는 음료(15.4%p), 식료품(6.2%p), 섬유제품(5.8%p) 등의 설비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나, 의료정밀광학(-10.5%p), 기타제품(-5.6%p) 등은 감소할 전망

업종별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

(단위 : %, %p)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의약품	66.7	71.4	4.8
음료	31.3	46.7	15.4
자동차	40.2	39.4	-0.8
화학제품	35.2	38.1	2.8
식료품	29.4	35.6	6.2
기타제품	39.6	34.0	-5.6
기계장비	31.4	30.9	-0.5
고무・플라스틱제품	27.1	30.6	3.5
가구	34.8	30.0	-4.8
금속가공제품	27.2	29.4	2.2
비금속광물	28.1	27.8	-0.3
1차금속	27.0	27.4	0.4
전자부품・컴퓨터	30.3	26.6	-3.7
전기장비	25.0	26.4	1.4
의료정밀광학	34.8	24.2	-10.5
종이제품	24.2	23.2	-1.0
섬유제품	16.4	22.2	5.8
인쇄・기록매체	19.5	20.7	1.2
가죽・신발	17.4	15.9	-1.4
의복・모피	12.7	15.5	2.8
나무제품	15.9	12.7	-3.1
기타운송장비	9.2	8.6	-0.5

3 설비투자 실시 사유

□ 설비투자 실시 사유로는 '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57.5%), '기존 제품의 생산력 증대'(36.2%), '차량·선박·공구·비품 구입'(32.4%) 등의 순

○ 전년 대비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6.3%p), '신규사업 진출'(3.0%p) 등의 응답비율은 증가한 반면,

○ '차량·선박·공구·비품 등 구입'(-4.4%p), '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3.4%p)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

설비투자 실시 사유

(단위 : %, %p, 복수응답)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	60.9	57.5	-3.4
기존제품의 생산력 증대	37.3	36.2	-1.1
차량·선박·공구·비품 등 구입	36.9	32.4	-4.4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18.2	24.5	6.3
신제품 생산	16.9	18.3	1.5
공장 자동화	14.3	13.6	-0.6
신규사업 진출	5.6	8.6	3.0
공장이전(국내)	8.1	7.2	-0.9
내수경기호전 기대	6.1	6.1	0.0
환경오염 방지	3.1	3.1	0.0
에너지 절약	2.3	2.7	0.4
기타	1.7	2.7	1.0
수출경기호전 기대	1.2	2.2	1.0
정보화 추진	1.2	1.1	-0.1

4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로는 '기존설비만으로 충분'(73.4%), '국내수요 불투명'(48.6%), '수익성 저하'(29.6%) 등의 순

○ '기존설비만으로 충분'(2.9%p)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

○ 그러나, '국내수요 불투명'(-3.3%p), '자금 부족 및 조달난'(-2.3%p)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단위 : %, %p, 복수응답)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기존설비만으로 충분	70.5	73.4	2.9
국내수요 불투명	51.9	48.6	-3.3
수익성 저하	30.9	29.6	-1.3
자금 부족 및 조달난	20.2	18.0	-2.3
수출수요 불투명	10.9	10.3	-0.5
투자의욕 상실	4.6	4.5	-0.1
외주생산 확대	3.1	3.9	0.8
기능인력 확보곤란	3.1	2.6	-0.5
입지 및 설비증설에 따른 각종 규제	2.1	1.8	-0.3
환율변동	1	1.2	0.2
공장부지 확보난	1.4	1.1	-0.3
기타	0.4	0.4	0
생산설비 해외이전	0.1	0.1	0

Ⅱ. 2015년 자산형태 및 자금조달별 설비투자 전망

1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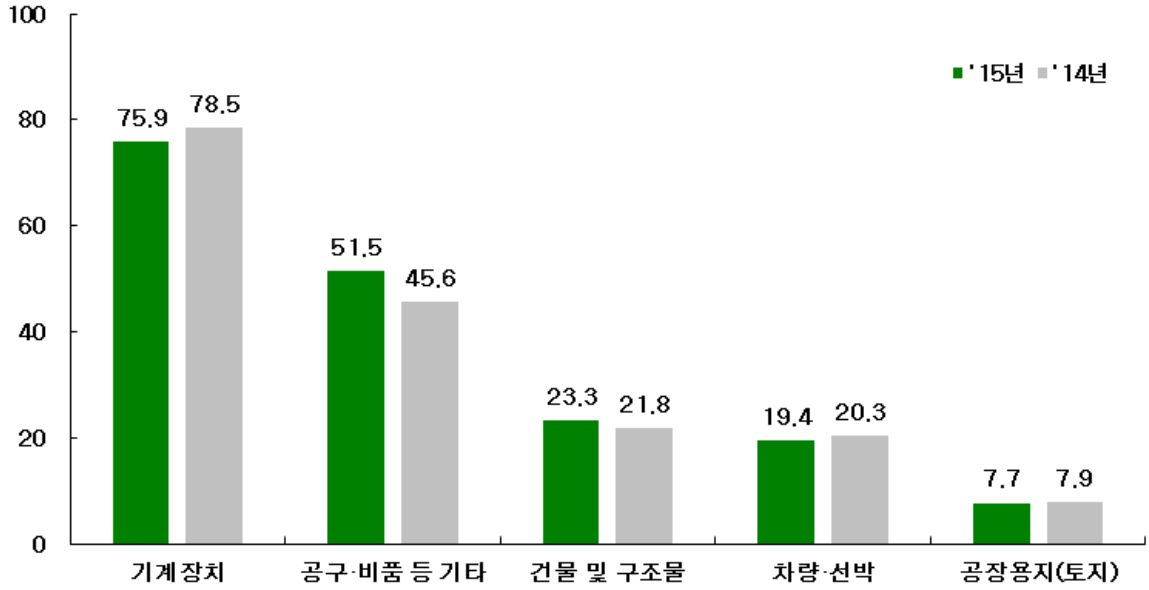
□ 자산형태별로는 ‘기계장치’(7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구・비품’(51.5%), ‘건물 및 구조물’(23.3%) 등의 순

○ ‘공구・비품’, ‘건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

○ 반면, ‘기계장치’, ‘차량・선박’ 등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전망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 추이

(단위 : %, 복수응답)



2 자금조달처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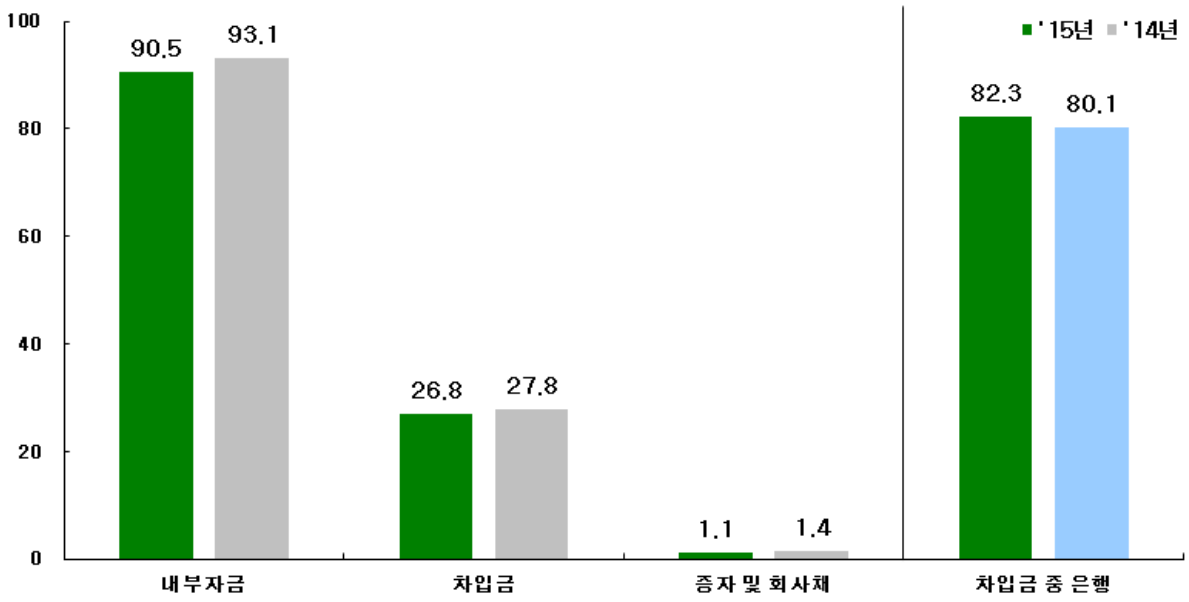
□ 설비투자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금'(90.5%), '차입금'(26.8%), '증자 및 회사채'(1.1%) 등의 순

○ 전년 대비로는 '내부자금'과 '차입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하락할 전망

○ 다만, '차입금' 중 은행을 이용한 차입의 비중은 늘어날 전망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의 자금조달 비중 추이

(단위 : %, 복수응답)



Ⅲ. 2015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여건 전망

1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 설비투자 의사결정 주요 요인은 ‘내수경기’(69.2%), ‘설비의 노후화’(47.1%), ‘거래처 주문량’(42.4%) 등의 순

○ 전년 대비로는 ‘설비의 노후화’(-2.3%p), ‘동업계의 설비투자 동향’(-2.1%p), ‘신상품 개발’(-1.5%p) 등의 응답비율이 하락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단위 : %, %p, 복수응답)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내수경기	69.6	69.2	-0.4
설비의 노후화	49.4	47.1	-2.3
거래처 주문량	43.8	42.4	-1.4
자금조달 사정 및 조달금리	27.7	27.7	0.0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경영자의 직관	22.3	22.1	-0.2
수출경기	13.1	13.1	0.0
신상품 개발	13.7	12.1	-1.5
동업계의 설비투자 동향	9.1	7.0	-2.1
정부의 경제정책	6.3	6.0	-0.3
부동산 및 시설재 가격	3.5	4.3	0.8
환율	1.1	1.8	0.7
기타	0.6	0.4	-0.2

2 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애로사항 없음'(44.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대출금리'(25.8%), '담보 부족'(19.3%) 등의 순

○ '애로사항 없음'(1.5%p), '대출절차 복잡'(1.1%p)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높은 대출금리'(-4.0%p), '대출한도 부족'(-1.1%p) 등의 애로사항은 전년 대비 하락

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 %, %p, 복수응답)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애로사항 없음	42.5	44.0	1.5
높은 대출금리	29.8	25.8	-4.0
담보 부족	19.6	19.3	-0.3
대출한도 부족	19.7	18.6	-1.1
적기차입 곤란	11.7	11.9	0.2
대출절차 복잡	9.7	10.8	1.1
대출기한 등 상환조건 불리	10.1	10.0	-0.1
부대비용 과다	2.9	2.9	0.0
기타	0.4	0.5	0.2

3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은 '내수경기 부양'(57.4%),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35.2%),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23.3%) 등의 순

○ 전년 대비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3.8%p)의 응답비율은 상승한 반면, '저금리기조 유지'(-6.8%p),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2.5%p) 등의 응답비율은 하락

설비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바라는 사항

(단위 : %, %p, 복수응답)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내수경기 부양	59.7	57.4	-2.4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	37.7	35.2	-2.5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19.4	23.3	3.8
저금리기조 유지	26.5	19.7	-6.8
설비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15.1	12.7	-2.4
투자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6.1	6.2	0.1
성장중심 경제정책	5.8	5.5	-0.3
납품 모기업(협력기업)의 설비투자지원	2.8	2.6	-0.2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1.9	1.1	-0.8
기타	0.2	0.2	0.1

4 동종업계 설비투자 전망

□ 동종업계의 설비투자는 '작년 수준'(44.7%)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32.2%), '작년보다 축소'(19.1%) 등의 순

○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5.9%p)한 업체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 작년 수준을 유지(-2.4%p)하거나 작년보다 확대 할 것(-2.7%p)으로 전망한 업체비율은 하락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

(단위 : %, %p)

	'14년 (A)	'15년 (B)	증감차 (B-A)
작년 수준	47.2	44.7	-2.4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6.3	32.2	5.9
작년보다 축소	19.8	19.1	-0.7
작년보다 확대	6.7	4.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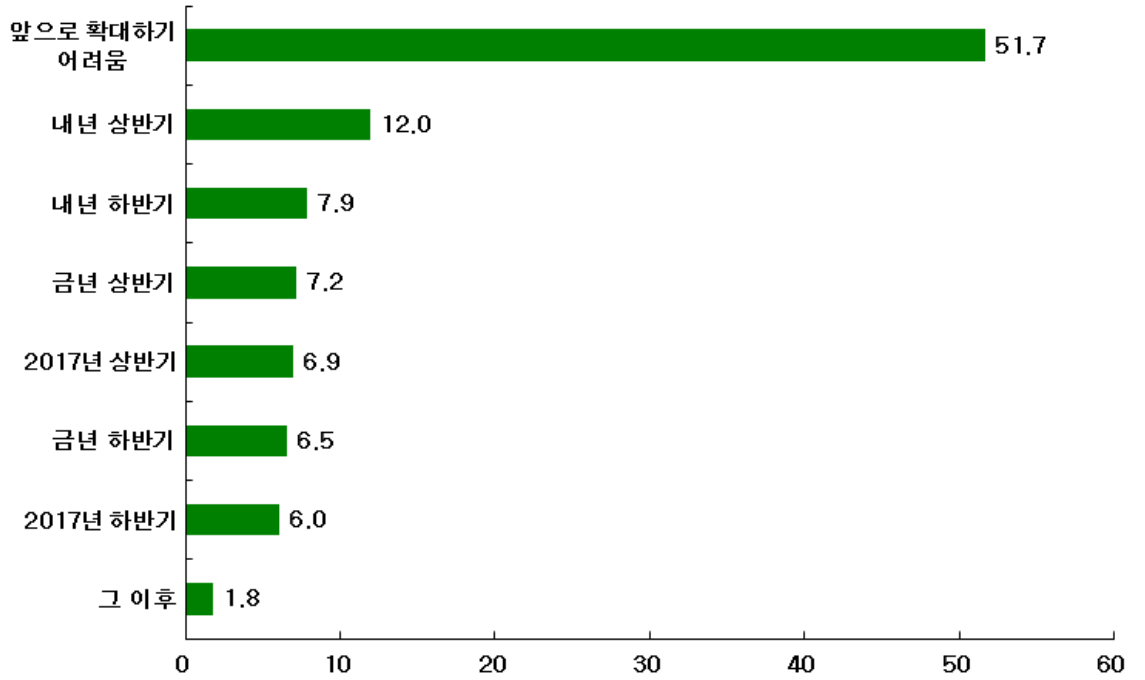
5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 설비투자 확대시점에 대해 '앞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것'(51.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12.0%), '내년 하반기'(7.9%)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내수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단위 : %)



<부록> 조사개요

□ **조사목적 및 조사결과 공표**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공표

□ **조사지역, 대상 업체 및 응답률**

○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업종 및 종사자수를 감안해 3,169개 사업체를 선정

○ 201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조사 응답률 : 84.5%

□ **조사표본 구성**

○ 모집단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 5～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 표본 : 중소제조업 24개 업종 중 담배제조업(12),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제조업(19)을 제외한 22개 업종을 종사자 규모별로 6개 구간으로 세분한 132개 층에서 단순임의추출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회수

□ **조사실시 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16일

□ **특수 분류기준**

○ **산업별**

- **경공업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1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 **중화학공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안은 산업분류 코드임)

○ **형태별**

- **가공조립**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초소재**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 **생활관련**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 **규모별**

- 종사자수 기준 : 소기업(5~49인), 중기업(50~299인)